

움라우트 불투명성의 통시적 고찰*

이희두

(원광대학교)

Lee, Heedoo. 2006. Diachronic Study on the Opacity of Umlaut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3), 137-154. Discourse marker 'ㅣ' was frequently used to reduce the distance between a speaker and a hearer so that the discourse efficiency was increased. This marker was developed from a subject marker 'ㅣ' by way of grammaticalization at the time of Middle Korean and then its status was changed to a latent vowel. If this marker was affiliated to the end of the noun stems which had a vowel at final position, the final vowel of this noun was changed to a falling diphthong owing to the vowel system at that time. Historically the falling diphthongs were monophthongized at the time of about 18C in Modern Korean so that the vowel system was drastically changed to the vertical system and then become to have front vowels. The modern dialectal variant as '바대'(海), '치매'(裳), '나라'(國), '시내'(臣下), '재'(尺) etc were formed by the above historical process diachronically. Nowadays these variants have become to have front vowel forms so that the opacity of Umlaut has emerged.

Key Words: Umlaut, opacity, diachronic change, monophthongized

1. 머리말

전설모음형을 나타내는 '치매(<치마), 이매(<이마), 장개(<장가), 가매(<가마)' 등은 일반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환경을 벗어난 것이어서 불투명성을 띤다. 이러한 불투명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화의 방향과 적용 환경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움라우트의 적용 환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유추적 확대에 의한 화용론적 전용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끝음절이 전설모음으로 바뀐 어형은 공시적인 순행동화 및 하행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한 역사적 현상의 결과로 해석되었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다.

이 글에서는 위에 제시된 유형의 불투명성을 담화표지의 관점에서 하나의 기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담화표지란 청자의 변별력을 증대시켜 주면서, 담화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첨부하는 언어요소이다.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이’가 의미 탈색, 문맥의 확장, 비범주화, 음운론적 감축과 같은 문법화 과정을 통해 잠재모음 ‘이’가 되어 담화표지가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 담화표지는 문법적 층위가 아닌 담화적 층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비격식적인 구어체 어형에 주로 나타나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혀 [친밀성]을 증대시킨다.

중세국어에서 담화표지 ‘이’는 자음으로 끝난 어사 및 모음으로 끝난 어사 뒤에서 두루 나타난다. 자음으로 끝난 어사 뒤에 붙는 ‘이’는 인명 및 동·식물명에서(그력; 그러기 등)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모음으로 끝난 어사 뒤에 ‘이’가 첨부되면 하향이중모음을 이룬다(가마; 가매 등). 이 하향이중모음이 근대국어에 이르러 단모음화한 결과 전설모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형들은 음라우트와 관계가 없으며, 본디 담화표지가 첨부된 것이어서 단모음화한 후에도 역시 [친밀성]을 드러내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 한다.

역사적인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때문에 담화표지 ‘이’는 문법화를 더 경험하여 잠재모음의 신분에서 [전설성]의 담화 자질로 바뀌어 진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설성] 자질이 어두 모음에 첨부되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첨부되는 위치가 어말에서 어두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 결과 ‘땀배’ ‘씨주’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어형의 발생 원인은 단지 담화표지 ‘이’의 신분이 바뀌어 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음라우트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담화표지 ‘이’의 기능

의사소통은 담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담화를 이루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는 문장의 명제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만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다. 이 표지는 명제적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담화표지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발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자가 취하는 여러 전략 중의 하나로서 화자의 표현이 이를 통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할 말

이 생각나지 않아 적절한 표현을 탐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그니까, 뭐냐면, 거, 저’ 같은 메움말(filler)이나,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말(back channel)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이 담화표지는 화자가 담화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는 양상표지인 것이다. 화자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담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한다. 그 중에는 화자와 청자의 담화적 거리 즉, 화자와 청자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 청자에 대한 친밀감이나 다정함 또는 진솔함 등을 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담화표지도 있는데,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화표지이다.

담화표지 ‘이’는 주격조사 ‘이’가 문법화를 경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고자 하는데, 화자의 의도나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 형태는 문법적 층위에서는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잉여적 요소이지만, 담화적 층위에서는 그 나름의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중세국어 당시 및 그 이전의 주격조사 ‘이’가 담화표지로 발달한 것은 문법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첫째, 내용어가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 또는 기능어가 또 다른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 등의 과정적인 변화 양상을 모두 문법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상의 함축 의미나 화용론적 추론에 의한 문맥 의미가 언어 내적 의미를 얻게 되거나, 통사 구조가 하나의 어휘 표현으로 굳어져서 언어 체계 안에서 새로운 영역을 얻게 되는 것도 문법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권재일 1998: 886). 둘째,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효율성과 정보성을 최대화하려는 화용적 욕구 때문이다. 셋째, 주격조사 ‘이’의 분포상의 불균형성 때문으로 보인다. 자음 뒤에서는 [i]가 출현할 수 있었으나, 모음 뒤에서는 [j] 그리고 ‘이’모음과 하향이중모음 뒤에서는 아예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근대국어에 이르러 주격조사 ‘가’가 발생하여 생략된 자리를 채울 수 있었으나 중세국어 당시의 이러한 불균형성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넷째, 언어 사용면에서 보아, 주격조사 ‘이’는 체언 뒤라는 특수한 환경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보다 사용빈도가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상 주체는 항상 먼저 상정되는데, 사용빈도가 높아져 일반화의 경향을 보이게 되면 그 의미 특성이 약화되어 의미 탐색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탐색함에 따라 다른 기제들도 발생하게 됨으로 문법화가 더 빨리 진행하게 된다. 문법적인 의

미론적 관계의 격 개념으로부터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 개념 즉 친밀감을 환기시키는 담화표지로 바꾸어진 것이다(비범주화). 다섯째, 음운론적 감축 현상을 일으켜 /r/는 뿌리마디를 상실한 잠재모음 ‘i’로 변한다. 잠재모음은 상위 제약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음 뒤에서는 음성실현되지 않아 표면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¹⁾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리가 고루어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종래 소리를 고루기 위해 ‘i’가 첨가되는 것으로 본 견해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담화표지인 잠재모음 ‘i’가 첨가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출현한 현상이 소리 고름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잠재모음은 자음 뒤에서만 음성실현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름이나 동물이름 뒤에 빈번하게 나타나 통시적으로 담화표지 ‘i’는 어간의 일부로 재구조화된다.

이렇게 볼 때, 주격조사 ‘i’는 위의 기제들에 따라 담화표지로 문법화되면서, 그 사용상의 분포가 확대되어 체언과 용언에 두루 삽입되어 쓰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문맥의 확대). 특이한 점은 담화표지의 잠재모음 ‘i’가 더 문법화 과정을 겪어 방언에 [전설성] 자질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음라우트 환경이 아닌 곳에서 전설모음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쇠주(소주)’, ‘빨갱이(빨갱이)’, ‘똥일(통일)’, ‘녕사(농사)’, ‘쇠금(소금)’, ‘녕촌(농촌)’, ‘늑동(노동)’ 등 수많은 예들은 주로 입말에서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담화표지 [전설성]이 일으킨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주격조사 ‘i’가 지닌 의미 영역이 더 추상적인 의미 영역으로 개념적 전이를²⁾ 일으키면 담화표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물리적인 대상이나 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 영역으로부터 시간과 공간, 또는 관계성과 같은 추상적 의미 영역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은유적인 성질을 띤다. 어떤 개념을 통해 다른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은유적 전이 과정을 통해 문법화하여 담화표지가 된 것으로 본다(Heine et al. 1991: 48). 주격조사 ‘i’의 담화표지로서의 문법화는 인지적 관점에서 서술어와 주어의 의미론적 관계 개념으로부터 화자와 청자의 담화적 관계로 전이되어

1) 잠재모음의 음성적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박종희(2004) 참조.

2)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통해 다른 개념을 전달하고자 할 때 전이의 방향은 구체적 개념(기본 개념)에서 추상적 개념(관계 개념)으로 연결된다. 구체적 개념은 근원(source) 영역이며, 추상적 개념은 목표(target) 영역이다. 문법화는 바로 근원 영역에서 목표 영역으로의 전이라 할 수 있다. 전이를 설명하려는 모형으로는 탈색(bleaching)모형, 잃고-얻기(loss and gain)모형, 중복(overlapping)모형, 원형확장(prototype extension)모형, 환유-은유(metonymic metaphorical)모형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권재일(1998) 참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력과 정보성을 더 높이고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환유적 전이 과정도³⁾ 문법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이런 화용론적 관점에 설 때 주격조사 '이'의 담화표지로서의 문법화는 가능하다. 사람이름에서 동물이름으로 그리고 일부 명사 뒤로 사용 환경이 확대되어 가고 또한 사용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화용론적인 추론과 대화상의 함축적 의미가 새로운 언어 내적 의미 영역을 얻어 [친밀감]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발달한 것이다. 특정한 문맥에 의해 도입된 의미가 부각되어 새로운 개념적 조직을 형성하고, 또한 더욱 추상화되어(주관화) [친밀감]을 나타내는 담화표지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름의 고유명사에 담화표지 '이'가 결합된 어형이 중세국어의 표기상에 나타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a. 車匿이 塞特이^는 혼 날애 나스불씨<월곡 19>
- b. 益利 드라가 羅卜이드러 날오디<월석 23: 74>
- c. 瞿曇이로 供養하리라 호고<월석 21: 197>
- d. 부데毗耶離에 阿難이와 호오사 안자겨샤<월석 23: 71>
- e. 가야미 사릴 뵈오 몸 닷길 勸하야눌 須達이도 슬피 너기니<월곡 62>

인명 뒤에 첨부된 '이'를 이 글에서는 문법적 층위가 아닌 담화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담화표지로 보고자 한다. 담화표지는 특성상 명제적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수의적으로 사용된다. 사람이름에 첨가된 '이'는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략하더라도 자연스럽지는 못할 망정 비문법적인 문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는 글말보다 입말에서 더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의 용자례에 다음과 같은 동물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 (2) 두텁(蟾蜍), 납(猿), 벌(蜂), 풀(蠅), 부형(鴛鴦), 남상(龜), 굼병(鱉), 올창(蝸蝸)

3) 환유적 확장이란 언어 문맥의 인접성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특정 문맥에 나타나는 의미가 부각되어 개념망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더해 새로운 원형을 나타낸다.

그런데 80여년 뒤의 문헌인 훈몽자회에서 이 예들은 훈몽자회에 없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과 같이 ‘ㅣ’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3) 두터비, 픈리, 부형이, 기러기, 굽병이, 올창이

물론 ‘ㅣ’가 결합되지 않은 형과 결합된 형이 각각 15세기와 16세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5세기에도 ‘두터비<남명 상: 11>, 픈리<두시 10: 28>, 기러기<금삼 2: 6>, 버리<두시 25: 18>’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동물이름에 나타나는 ‘ㅣ’가 생산성이 없고 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동물이름에 나타나는 ‘ㅣ’는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ㅣ’가 없는 형과 ‘ㅣ’가 결합된 형이 모두 나타나기도 하고 다소 시기를 달리 하여 두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ㅣ’는 분석 가능하고 또한 어느 정도 생산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북’과 ‘거북이’가 모두 쓰이는 현대국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북’이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동물이름 뒤에 붙는 ‘ㅣ’도 담화표지로 보려 한다. 사람이름 뒤의 ‘ㅣ’와 동물이름 뒤의 ‘ㅣ’는 모두 명제적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고 단지 담화적 기능에서만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쓰임은 의성어나 의태어의 어근 자체가 동물이름으로 사용될 때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용자례의 동물이름에는 ‘ㅣ’가 없는 형으로 나타나며, 또한 유아어에서는 동물이름이 의성어 어근만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지 문헌상에도 ‘ㅣ’가 없는 형이 쓰이고 있다. ‘그력’의 경우는 ‘그력 올히<두시 21: 3>’과 같은 명사의 나열에 쓰이므로 15세기에 ‘그력’이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 또한 ‘부형바회<용가 5: 27>’과 같은 복합어에서 단독형 ‘부형’이 나타난다. ‘두텁’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는 ‘ㅣ’가 결합되지 않는 형이 속격형 이외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후대의 문헌에서 ‘두텁도<교시조>’와 같은 예가 나타난다. ‘곤’의 경우는 훈민정음 해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예인데 ‘곤 ㄱㅌ시며<월석 2: 57>’, ‘곤<훈몽 상: 9>’로 보아 15세기나 16세기에 ‘곤’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거북’은 15세

4) 그러나 같은 문헌에 ‘기러기 올히는<두시 7: 9>’로 쓰이고 명사의 나열이 아닌 경우에는 속격형만 쓰이므로 역시 속격형에서의 ‘ㅣ’탈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 국어에서 ‘거부불<두시 8: 58>’과 같은 대격형이 쓰일 뿐 아니라 훈몽자회에서 단독형 ‘거불’이 나타나고 있다.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할 때, ‘거불’의 경우 ‘ㅣ’가 결합된 형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다면 ‘거북’과 ‘거북이’가 모두 사용되고 ‘거북’에 비해 친밀감을 가지는 경우 ‘거북이’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북이’에 쓰이는 ‘ㅣ’는 사람이름에 결합하는 ‘ㅣ’와 동일한 것으로서 담화표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ㅣ’는 다음과 같이 사람이름이나 동물이름이 아닌 명사에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 (4) a. 玉殿엔 이시 퍼러호도다<두시 6: 17>
 b. 술 아랫 물곤 브르미 잇글 브러 다으니<남명 상: 72>
 c. 물 가운데 ㄴ는 잇기는<벽신 9>

우리는 (4a)의 예에서 ‘잇’을, (4b)의 예에서 ‘읽’을, (4c)의 예에서 ‘잇기’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여기에서 ‘잇’과 ‘읽’이 쌍형어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잇기’는 ‘읽’에 ‘ㅣ’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은 ‘털’과 ‘터리’에서도 나타나는데, ‘읽’과 ‘잇기’, ‘털’과 ‘터리’는 의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구본관 1997: 125-131).

- (5) a. 불 털 그트로<구간 1: 83>, 털 뜯다<훈몽 하: 6>
 b. 입과 터리에 다 도흔 향내 나시며<월석 2: 58>

이 ‘잇기’에 나타나는 ‘ㅣ’는 무엇인가? ‘읽’과 ‘털’에 ‘ㅣ’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도 이 ‘ㅣ’가 문법적으로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물론 소리를 고루기 위해 순수히 음성적인 이유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구본관(1997)에서는 이런 예에 쓰이는 ‘ㅣ’를 ‘명사+주격조사 ㅣ’의 통사구성이 어휘화되어 화자에게는 단일어로 인식된 것으로 보았다.⁵⁾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예들도 역시 담화표지로 보려 한다. 수의적으로 나타나면서 명제 내용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 ‘ㅣ’는 문법적 층위에서 기능하지 않고 담화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담화

5) 이에 대해서 허용(1975: 228)에서는 특별한 뜻을 더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가지(접미사)로 보았고, 안병희·허경(1992: 93)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더하지 않는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표지 ‘ㅣ’가 첨부된 ‘터리’형은 재분석 과정을 거쳐 단일어로 인식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孔聖이 나죄 주구를 돌히 너기니<월석 18: 32>’, ‘날마다 세 ㅅ로 十方諸佛이 드리와<월석 2: 26>’에 보이는 ‘나죄’, ‘ㅅ’도 담화표지 ‘ㅣ’가 첨부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⁶⁾ ‘때’를 나타내는 중세국어의 어형은 ‘ㅸ’인데, ‘ㅸ’가 주격형이나 단독형의 자리에 나타나 ‘ㅸ’처럼 쓰이기도 하므로 ‘ㅸ’는 처소부사격형이 아니라 담화표지어가 첨가된 형으로 보아야 한다.

3. ‘치매’ ‘장개’ 등의 불투명성과 단모음화

모음 전설화의 유형으로서, 담화표지 ‘ㅣ’가 첨부된 후에 근대국어에 이르러 전설모음으로 단모음화된 예들을 보자.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예들은 「천자문 자료집」(1995)에 보이는 ‘바대’(海), ‘치매’(裳), ‘나래’(國), ‘시내’(臣下), ‘재’(尺), ‘궤코리’(象)와 같은 방언형 들이다. 이러한 예들을 공식적 관점에서 해당 방언에서 수행된 음라우트 또는 그 확대형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도수희 1981:10, 성희재 2000 참조).

도수희(1981: 10)은 (6)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남방언에는 일반적인 역행동화는 물론 순행동화에 의한 음라우트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6) a. 치매(치마), 맹길다<맹글다(만들다), 가림매<가름매(가름마), 기개매켜(기가막혀)
b. 부애(부화), 가매(가마), 장개(장가) 등

위의 예에서 동화주 ‘이, 에, 애’에 의한 순행동화로서의 음라우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개매켜’의 전반부는 순행동화로, 후반부는 역행동화로 성립하는 자못 기이한 음라우트형임을 특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옥(1989)에서는 도수희(1981)의 두가지 논의 즉 ①전설모음은 모두 동화주가 된다는 주장과, ②순행적 음라우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도수희(1981)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비판 근거로서 우선 동일 지역어에

6) ‘나조항’에 처소의 부사격조사가 부가되어 ‘나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파생접미사가 아니라 처소의 부사격조사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예는 처소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ㅸ 나죄 포<훈몽 하 1>’, ‘나죄 오매 노꾼 興이 다운니<두시 11: 26>’의 예에서 나타나는 ‘나죄’의 경우 처소격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서 동화주 위치에 후설모음이 있으나 그 앞 음절이 전설모음화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예컨대,

- (7) a. 배갈(바갈), 빨가당이(발가둥이), 찌꾸(자꾸), 냉구면(납기다), 미섭
던지(무섭다)
- b. 댐배(담배), 뱅맹이(방망이)

(7a)이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7b)의 ‘댐배(담배), 뱅맹이(방망이)’ 등과 함께 이들 예는 후행 음절의 모음에 의한 동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7a,b)의 전설모음화를 서로 다른 음운론적 기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7a)의 두 번째 음절의 후설모음이 나 (7b)의 두 번째 음절의 전설모음이 그 앞 음절의 후설모음을 전설모음화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두 번째 음절이 전설모음이지만 (7b)과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는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 (8) 삼베(*쌔베), 장개(*쟁개), 어깨(*에깨)

즉 (8)의 어두 음절에서는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7a)과 (7b)의 전설모음화는 후행 음절의 모음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명되어야 할 그 어떤 다른 음운론적 기제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비판 근거는 우선 (6)에 제시된 ‘치마→치매, 맹글다→맹길다, 기가막혀→기개매켜’ 등의 자료만 한정하여 보면 후행 음절의 전설모음화는 선행 음절의 전설모음에 의한 것이지만,

- (9) 부애(부화), 가매(가마), 장개(장가)

(9)처럼 선행 음절에 후설모음이 있을 때의 후행모음의 전설모음화를 고려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7a)의 예와 (7b)의 예는 편의상의 구별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동일한 기제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옥(1989)에서는 어떤 음운론적 기제에 의해 이들이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⁷⁾ 다음의 (10)에서 우리는 그 사실

7) 정인승(1938:4-5)는 이러한 현상을 “우연한 언어습관에 인한 현상”이라 하여

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전설모음이나 후설모음이 그 앞 음절의 후설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동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방언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의 단어들이 전설모음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접하게 되는 이들 단어의 방언형은 전설모음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 (10) a. 삼베(麻布)(*삼베), 장개(장가 婚)(*쟁개), 가매(가마 較)(*개매), 어깨(肩)(*에깨), 고개(峴)(*괴개), 소매(袖)(*쇠매), 도깨비(鬼)(*되깨비), 두깨비(두꺼비)(*뒤깨비), 등갱이(등성이)(*딩갱이), 짜개-(또개- 劈) (*짜개-) 등
 b. 나무(木)(*내무), 나물(菜)(*내물), 참말(眞言)(*참말), 깜깜하-(暗)(*깜깜하-), 장만하-(準備)(*쟁만하-), 가만히(靜)(*개만히), 암만(如何)(*앰만), 아무(某)(*애무), 서방(書房)(*세방), 허물(過)(*혜물), 영감(令監)(*영감), 영간히(웬만큼)(*영간히), 모가지(頭)(*되가지) 등
 c. 사기:-(<사귀- 交)(*새기-) 등

그러나 이 방언형들의 기원은 근대국어 단계에 출현하였던 다음의 산발적인 몇 가지 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음절 어간의 명사에 담화표지 ‘ㅣ’가 침부되어 이중모음을 형성한 다음에 단모음화를 거쳐 전설화된 예들이 분명하다.

- (11) 가매(釜): 가매예(언해 두창집요 상 6ㄴ)
 가매애(중간 두시언해 11.17ㄴ)
 화뢰(爐): 화뢰예(언해 태산집요 66ㄴ)
 팔지(八字): 팔지톨(현풍곽씨 언간 no.46)
 마뢰(廳): 마뢰여(상동 no.10)
 마뢰허머(상동 no.62)

위의 ‘가매, 화뢰, 팔지, 마뢰’형들의 어간말 모음은 17세기 초엽의 단계

음라우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유창돈(1964:165)와 최전승(1986:175 주6)에서는 이 현상을 i모음침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최명옥(1989)에서는 앞으로 구명되어야 할 그 어떤 다른 음운론적 기제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최근의 신중진(2001), 성희제(2001), 최전승(2004) 등에서는 일종의 유추적 확대 현상으로 본 바 있다.

에서 오늘날과 같은 전설모음이 아니라, 각각 이중모음을 형성했을 것이다.⁸⁾ ‘화뢰’(爐)와 ‘마뢰’(廳)의 어간말 모음 oy는 이후의 지속적인 발달 과정에서 현대 지역 방언에서 각각 ‘화리/화래’와 ‘마래/마리’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최전승 2004).

담화표지 ‘ㅣ’는 전통적인 한자어에도 첨부되어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지역 방언에서 흔하게 출현하는 ‘뇌동’(勞動)과 ‘뇌곤’(勞困)이 여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방언형들이다. 『천차문 자료집』(1995)을 중심으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한자음이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하여 준다. 예뵈 뵈(勞, 평북 강계), 수그로울 뇌(전남 곡성, p.63). 방언형 ‘괴코리’(象)도 ‘코’(鼻)에 담화표지 ‘ㅣ’가 첨부된 이후에 형성된 단어로 보인다(최전승 1995:343).

문헌자료상에서 담화표지 ‘ㅣ’가 첨부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5세기 국어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즉 『杜詩諺解』(1481)에 한 예가 보인다.⁹⁾

(12) 희와 둘왜 새곤 집 몰러 갓가엿도다(日月近雕梁, 두초 6:27a)

이 예는 이제까지 알려진 용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예문이지만, 그 용례가 하나에 불과해서 그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이 예는 중앙에서 간행한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 ‘개’ ‘ㅈ’의 /e/ /ɛ/로의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움라우트로 볼 수가 없다(홍윤표 1994). 여하튼 이 예는 담화표지 ‘ㅣ’의 첨부가 용언어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나타나는 자료는 16세기의 문헌에서다. 『別行錄節要諺解』(1522)에 이미 담화표지 ‘ㅣ’가 첨부된 모습이 보인다.

(13) 제기(略 4a) cf. 저기(부사, 略 26b 33b), 죄히(淨 10b) cf. 조히(부사)
‘깨끗이’

그 이후 17세기 초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즉 다음과 같이 『東國新續 三

8) ‘가마→가매’(부)의 예는 15세기 국어 자료에서도 등장하였다. ‘가매에져’(가매에서←가마술에서)(석보상절 제3권)(김영배 2000:406)

9) 16, 17, 18세기의 예들은 홍윤표(1994)에서 인용. 15세기 예로서 ‘새곤’ 외에도 ‘버히다:배히다’ 등의 예를 들었으나 움라우트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기제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예들 모두 담화표지 ‘ㅣ’가 첨부된 것으로 본다.

『綱行實圖』(1617)에도 나타난다.

(14) 제기, 지애비톨(cf. 지아비), 제혀(cf. 저혀)

이 문헌은 방언을 반영하고 있어서 특히 이러한 자료가 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는 위에서 제시된 자료와 성격을 달리 한다. 특히 어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체언의 곡용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의 예들도 역시 지방판인 『家禮諺解』(1632), 『重刊杜詩諺解』(1632), 『勸念要錄』(1637) 등에 등장한다. 이 문헌들은 원주 지역어, 동남 방언, 서남방언을 반영한 것들이다.

(15) 나딩기디(cf. 든기실 제), 셋겨슈믈(cf. 셋근), 네겨(cf. 너기노니, 너겨), 뵈왜비(cf. 뵈왓비), 브리미(cf. 브르미), 에미, 귀퉁여(cf. 구퉁여), 쇠털(cf. 소털)

17세기 중기로 들어서면서 비록 산발적이긴 하지만, 자료가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담화표지 ‘ㅣ’의 첨부가 점차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들에서도 한 어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피·사동 접사에까지 확대되고, 여전히 체언이 곡용할 때에도 담화표지 ‘ㅣ’가 첨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용언어간+어미(또는 접미사)’ 또는 ‘체언어간+조사’인 경우에 담화표지가 첨부되는 층위는 형태론적 과정이 끝난 후에 첨부된다. 예; 적--+>저기>(담화표지 ‘ㅣ’첨부)제기, 브롬--+>브르미>(담화표지 ‘ㅣ’첨부)브리미. 특히 개재자음이 [+coronal]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실현되고 있어서, 움라우트 현상과 구별된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도 역시 동남방언을 반영한 자료인 『十九史略諺解』(1772) 『念佛普勸文』(1776) 등에서이다. 그리고 『註解千字文』(1752)에서도 나타난다.

(16) 네기리, 재퍼, 쥐견느니라, 귀경흐니, 귀경

중세국어의 사람이름, 동물이름, 또는 일부 명사 및 동사 어간에 ‘ㅣ’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은 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이 ‘ㅣ’모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담화적 층위의 요소로 보았다.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에서 나타난 담화표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문

현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첨가된 ‘ㅣ’모음은 명제상의 의미 내용이나 문법적인 품사 범주를 바꾸지 않고 주로 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에 하향이중이 존재했으므로 담화표지 ‘ㅣ’는 현대국어와 달리 마지막 음절의 자음 뒤는 물론 모음 뒤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예; 올챙이, 가매, 치매 등). 이기문(1971)은 ‘스즈’(獅子)가 ‘스지’로 표기된 예를 들고서, 이때의 ‘ㅣ’는 주로 인간이나 동물과 관련된 명사에 붙는 접미사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명사에 붙는 예들이 많으므로 그 기능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첨가 이유를 유보한 바 있었다. 여기서는 ‘스지’를 ‘스즈’에 담화표지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담화표지 ‘ㅣ’는 명사 어근이나 어간의 맨 끝에만 첨가되지 않고 중간 내부 위치에 첨가되기도 하여 분포상의 영역이 확대되어 있었다(예; 귀더기, 스스기로 등). 종래 이러한 예들을 움라우트형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음운론적인 움라우트 환경이 아니므로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다. 방언에 존재하는 이런 유형의 예들에(예; 가매, 장개, 치매/ 쇠주, 담배, 배깁, 뺨깁, 췌그만 등) 대해 움라우트의 생산성에 기인한 동화주 영역의 확대, 유사 움라우트 또는 화용론적 기능의 전용 등으로 보았으나, 이는 통시적 변화의 결과일 뿐이다. 담화표지 ‘ㅣ’가 첨가된 이중모음 어형이 통시적으로 단모음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움라우트 현상과는 별개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결과로 ‘ㅣ’는 현대국어에서 [전설성]으로 일반화되어 일부 방언에서 담화표지로 쓰이기도 한다. 중세국어 담화표지 ‘ㅣ’의 기능을 [전설성]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사 어간의 중간에 ‘ㅣ’가 첨가되는 경우도 담화표지 ‘ㅣ’의 첨가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예; 계시며, 잇너이다 등).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들도 움라우트의 초기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ㅣ’가 첨가되어 하향이중모음이 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움라우트는 아닌 것이다.

담화표지 ‘ㅣ’는 주격조사 ‘ㅣ’의 문법화에 의하여 사람이름 뒤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문법성의 정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단어나 구문들이 문법화하지 않고 소수의 항목만이 문법화를 경험하는데 이 소수 항목들은 빈도가 매우 높고 의미적으로 일반성을 가진다. 실제로 대화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소수이어서 어휘적인 빈도의 편중 현상

을 보인다고 한다. 이 고빈도 항목들이 담화에서 의미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이러한 의미 협상 속에서 개념적 변화와 형태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사람이름+주격조사 ㅣ’의 통합 구조를 기존의 구조와 다르게 분석하는 심리적 재분석을 통해 고빈도의 주격조사 ‘ㅣ’는 조금씩 문법적 관계 개념으로부터 화자와 청자의 관계 개념으로 추상화되어 친밀감을 조성하는 담화표지가 된 것으로 보였다. 화자가 함축한 의미의 친밀감을 청자가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담화표지어 ‘ㅣ’가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매’ ‘가매’ 등과 같은 움라우트 불투명성이 발생하게 된 것은 모음으로 끝난 체언 어간 뒤에 담화표지 ‘ㅣ’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ㅣ’가 첨부될 당시에는 하향이중모음이었으나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단모음화한 결과 전설모음형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움라우트의 불투명성 혹은 움라우트 현상의 확대형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움라우트와는 무관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의사소통은 담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담화를 이루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는 문장의 명제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화자의 발화의 의도나 심리적 태도만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다. 이 표지는 명제적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담화표지라 하는데, 이는 화자가 담화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는 양상표지인 것이다. 화자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담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화 책략에 따라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한다. 그 중에는 화자와 청자의 담화적 거리 즉, 화자와 청자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 청자에 대한 친밀감이나 다정함 또는 진솔함 등을 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담화표지도 있는데, 그러한 담화표지로서 중세국어의 ‘ㅣ’를 제시하였다.

담화표지 ‘ㅣ’가 첨부된 후에 근대국어에 이르러 전설모음으로 단모음화된 예들은 「천자문 자료집」(1995)에 보이는 ‘바대’(海), ‘치매’(裳), ‘나래’(國), ‘시내’(臣下), ‘재’(尺), ‘쇠코리’(象)와 같은 방언형 들이다. 이러한 예들을 공시적 관점에서 해당 방언에서 수행된 움라우트 또는 유추적 확대형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언형들의 기원은 근대국어 단계에 출현하였던 개음절 어간의 명사에 담화표지 ‘ㅣ’가 첨부되어 이중모음

을 형성한 다음에 단모음화를 거쳐 전설화된 예들로 보아야 한다. ‘가매, 화뢰, 팔지, 마뢰’형들의 어간말 모음은 17세기 초엽의 단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전설모음이 아니라, 각각 이중모음이었다. 담화표지 ‘ㅣ’는 전통적인 한자어에도 첨부되어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지역 방언에서 흔하게 출현하는 ‘뇌동’(勞動)과 ‘뇌곤’(勞困)이 여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방언형들이다.

역사적인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때문에 담화표지 ‘ㅣ’는 문법화를 더 경험하여 잠재모음의 신분에서 [전설성] 자질로 바뀌어진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설성] 자질이 어두 모음에 첨부되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첨부되는 위치가 어말에서 어두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 결과 표면상 전설화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담배(煙草), 되배(塗袴), 뉘에(黷), 뺨땡이(반당이), 잼재리, 잼자리(잠자리), 쥐똥이(주둥이), 배깁(바깥), 새닥다리, 새다리(사다리), 땡건(망건), 쪼그만(조그만)’ 등과 같은 불투명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불투명성이 발생한 원인은 담화표지 ‘ㅣ’의 신분이 바뀌어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음라우트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충구. (1995). 강원도 북부지역의 언어분화, 동대논총 제25집, 27-58, 동덕여대.
- 구본관. (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15세기 국어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29. 113-140.
- 권재일. (1998). 문법 변화와 문법화, 방언학과 국어학, 879-878. 태학사.
- 김경현. (1993). 하향이중모음 ‘j’의 성격에 관한 일 고찰 - 소위 ‘j’의 첨가·탈락 현상을 중심으로 -, 성균어문연구 제29집,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 김계곤. (2001). 경기도 사투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병제. (1980). 방언사전,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 김이협. (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정태. (2002). 충남 천안방언의 음라우트에 대하여, 우리말글 25집, 135-154, 우리말글학회.
- 김진우. (1996). 국어 음라우트 규칙의 재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김태엽. (2002). 담화표지되기와 문법화, 우리말글 제26집, 61-80.
- 도수희. (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1-20.
- 박종희. (2004). '-으X'계 활용어미의 음운론적 고찰, 한글 264, 67-94.
- 박창원. (1991). 음운규칙의 변화와 공시성, -움라우트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297-333, 민음사.
- 백두현. (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성희제. (2000).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형 연구, 어문학 제71집, 69-88. 어문학회.
-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총서18(국어학회), 태학사.
- 안병희. (1977). 초기 한글 표기의 고유어 인명에 대하여, 언어학 2, 65-72.
- 안병희, 허경. (1992). 국어문법론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오종갑. (1999). '이' 역행동화와 영남방언, 국어국문학 125집, 93-118, 국어국문학회.
- 유창돈. (1980). 『이조 국어사 연구』, 이우출판사.
- 이광호. (1986). 미지의 '이'를 찾아서, 어문학5, 67-83,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 이기갑. (2004). 국어 담화표지의 재해석, 558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논문.
- 이기문. (1971). 「'州'의 古俗音에 대하여」, 『장암 지헌영선생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 이기문 · 손희하. (1995). 천자문 자료집-지방 천자문 편-, 도서출판 박이정.
- 이성하. (2004). 입말과 문법화 연구, 558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논문.
- 이승욱. (2001). 문법화의 단계와 형태소 형성, 국어학 37, 263-283.
- 이재인. (1989). '-이'명사의 형태론, 국어국문학논총Ⅲ(이정 정연찬선생회갑기념), 820-835. 탑출판사.
- 이재인. (2000). 인명에 붙는 '-이'에 대하여, 배달말 27, 1-22.
- 이현희. (1987). 중세국어 '둔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133-150.
- 진태하. (1978). 「고유어화된 한어접미사 '子'(지)에 대하여」, 언어학』 제 3호, 한국언어학회.
- 최명욱. (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집, 탑출판사.

- 최전승. (1978). 「국어 i- 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 19,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 최전승. (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 (2004).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적 확대와 화용론, *우리말글* 31, 157-226.
- 한영균. (1991). 「움라우트의 음운사적 해석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8, 주시경연구소.
- 허웅. (1964). 서기 15세기 국어의 사역 피동의 접사, *동아문화* 2. 127-166.
-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ernd. (2003). Grammaticalization, in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 by Joseph R. & R. D. Janda, pp. 575-601. Blackwell Publisher.
- Heiner, B. & Kuteba, T. (2002). *Wor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pper, p. & Traugott, E.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ass, Roger. (1990). How to do things with junk: Exaptation in language evolution, *Journal of Linguistics* 26, 79-102.
- Lass, Roger. (1997). *Historical Linguistics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 (1986). OCP effects : gemination and antigemination. *Linguistic Inquiry* 17.
- Myers, Scott. (1993). OCP effects in optimality theory. The 25th annual conference on African linguistics. Rutgers University. *Phonology and morphology* 20. Seoul Korea.
- Prince, Aian & Paul Smolensky(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Vincent, N. (1995). Exaptation and Grammaticalization, *Historical Linguistics*. (1993), edited by Henning Andersen, 433-445,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이회두

570-749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번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전화: (063)850-6521

이메일: hello@wonkwang.ac.kr

Received: 30 Jun, 2006

Revised: 30 Aug, 2006

Accepted: 12 Sep, 2006